



법어 조대 유각 스님 대한 중대선사 방장

“대일 10만만이라도 고요히 정좌해 자신을 돌아본다면, 항상 지족(知足)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선정(禪定)을 집중적으로 닦아 일체를 내려놓아(放下) 명념을 그치고, 생명의 근원을 찾아 자신의 안심입명(安心立命)의 소재를 찾는다면, 심중에 한 광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3보 1배 정신’ 계속돼야

2002년 7월 18일, 서울 한 귀퉁이에 비가 내렸다. 그날, 서울 하늘은 뜨거웠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인 땅바닥은 더 뜨거웠다. 그야말로 ‘불타는 집’이었고 그 위로 한 줄기 비가 내렸다. 그 빗줄기는 스님들이 흘리는 땀방울이었다.

‘북한산 권릉도로’를 저지하기 위해 스님들이 거리로 나섰다. 그렇지만 거리와 ‘투사’는 아니었다. 가사 장삼까지 여법하게 갖춘 위엄 넘치는 부처의 제자들이었다.

10시, 서울역 광장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인 수경 스님을 비롯한 40여 대중들은 ‘한 마음이 청정하면 일체 중생의 마음이 청정하고, 하나의 국토가 청정하면 일체 국토가 청정하다’는 말로 시작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산 살리기 3보1배(三歩一拜)를 시작했다. 서울역에서 LG건설(권릉도로) 시공사를 거쳐 조계사에 이르는 3km의 거리를, 세 걸음마다 한번씩 큰절을 올리는 청회와 기도의 땅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3보1배 동참자는 모두 59명 비구스님8, 비구니스님37, 재가불자14. 그들이 내뿜는 첫 걸음은 인간의 탐욕을 참회한 이었고, 두 번째 걸음은 스러져 가는 문명명에 대한 연민과 위로였으며, 세 번째 걸음은 문명명을 살리겠다는 서원이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세로 올리는 한 번의 절은, 참회와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발원하는 간절한 기도였다.

비오듯 쏟아지는 땀방울은 장삼의 긴 소매자락까지 흥건히 적혔고, 그 땅의 메시지는 어떤 구조보다도 강력했다. 금속성의 메마른 구호가 아닌, 코골을 시리게 하는 그 정직한 물의 언어는 사람들의 가슴으로 곧장 날아들었다. 지나면 차들도 속도를 낮추었다. 사람들은 곱금히 호수문을 읽기 시작했다. 드디어 입을 열었다.

“북한산을 파헤쳐서는 안되지.” “왜, 들어가면 안 될까?”

오후 5시, 조계사 마당. 여섯 시간에 걸친 생명의 기도가 끝났다. 탈진한 수경스님과 한 비구니 스님이 구급차에 실려갔다. 경전 속에서 뛰어나와 세상과 호응하는 부처님 말씀을 ‘본다’.

그날, 3보1배는 온갖 이기와 탐욕에 물든 현대 문명의 ‘화려한 남루’를 보여 주었고, 세상의 정화를 위한 불교의 노력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신음하는 것은 북한산만이 아니다. ‘3보1배’는 계속돼야 한다.

윤제학(취재 2부 부장)

수행·교학체계 가닥잡기 착수

조계종, 스님·학자 1000명 대상 간화선 진단 등 설문

조사결과 바탕 10월 학술세미나

간화선 수행법과 지도체계는 이 대로 좋은가? 금강경과 전등법어를 소의경전(개인이나 종파가 근본으로 삼는 경전)으로 한 교학체계는 문제가 없는가? 조계종이 이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며 수행·교학체계 정립에 나섰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이를 위해 선권, 강원, 본말사 등의 스님과 불교학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두 달여 전부터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실상 조계종단의 수행·교학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인식을 전제로 어떤 수행법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떤 경전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계별 시스템(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그동안 조계종의 유일한 수행법이자 최고의 수행법으로 간주돼 온 간화선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위 ‘제3수행법’으로 불리는 다른 수행법들에 대한 종단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위빠사나나 아비타 등 제3수행법’이 과연 불교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방법인지를 철저히 검증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인식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법화 지장 염불 신앙 등 다양한 형태의 신앙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의경전인 금강경과 전등법어 외의 경전이나 논장, 선장

등에 대한 교학지침을 승·재가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이번 설문조사 가 끝나는 10월경 ‘불교의 세계관과 수행론’, ‘간화선과 다른 수행법과의 관계’, ‘제3수행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을 주제로 ‘조계종 수행체계 정립을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학술대회 이후 세부 계획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체계 정립에 들어갈 방침이다.

14년간 영국, 인도 등 해외에서 불교학을 공부한 미산스님(백암사 운문선원)은 “간화선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조계종전과 대승경전을 합한 교리체계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성철 교수(동국대 불교학)는 “승·재가가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상생의 오체투지
철마산원 선원장 수경스님을 비롯해 종로, 묘수, 지산, 원성 스님과 운문사 학인 스님 40여 명, 가톨릭 문규현 신부의 제자 불자 60여명은 18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역을 출발, 오후 5시 조계사에서 회향식을 갖는 등 6시간 동안 3보1배 정진을 하며 북한산 권릉도로 반대편에 대한 간절한 원을 세웠다. 참가자들은 3km거리의 아스팔트에 3천 번 이상 오체투지하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사진=고영태 기자

북한산 회룡사·흥법사 구간

관통도로공사 중지명령

16일 법원이 회룡사와 흥법사 구간을 지나는 북한산 권릉도로 구간에 대한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선 변경이 없을 경우 시공사의 공사 재개가 어렵게 됐다.

북한산 회룡사 등 19개 사찰이 지난해 11월 서울고속도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북한산 권릉도로 공사중지 가처분’과 관련,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김병원은 16일 북한산 회룡사 흥법사 등 사찰주변의 일 부구간에 대한 공사중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북한산 회룡사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 사찰로서 많은 승려들이 동안거·하안거 등의 수행도량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찰산 권릉터널 공사로 인해 수행도량으로서의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회룡사를 통과하는 터널구간과 도로 교량이 법당 위로 지나가는 흥법사 경내지와 소유토지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불교계는 이에 대해 대한영을 표하고 대안노선을 협의하기 위한 검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속도로측은 “회룡사와 흥법사 경내지에 대한 공사만 어려워졌다”며 “공사 중지가 기각된 나머지 구간의 공사에 대해서는 불교계도 법원 판결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11면>

강유신 기자 jsham@buddhapia.com

천태종립 금강대 내년 3월 개교

초대총장 박봉식 교수, 3개학부·등록금 전액지원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 이사회의 사장 도용 천태종 총장은 6월 24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초대 총장을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박봉식(진로필 4번) 서울대 명예교수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9명의 교수진도 확정됐다.

총장 논산시 상월면 대령리에 세워지는 금강대는 3만7천500여평 터에 1단계로 연면적 3천700평의 5층 강의동 이 6월 22일 준공되었고 오는 10월 3천 500여평의 5층 기숙사를 비롯 본관, 강의동 등도 차례로 완공될 예정이다.

금강대는 개교 첫해 불교문화학부(불교학 전공과 불교역사부영어나 학과·중국어학 전공, 사회과학부(사회복지학 전공 등 3개 학부 5개 전공)에 총 100명(전공별 2명)을 선발,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숙사도 무료 제공한다.

이경숙 기자 gnie@buddhapia.com

불교문화 체험하며 신심 키우기

가자!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대불교는 미래 불교의 주인이 될 새싹들을 키우기 위해 제5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열었다. 미륵종찰 법주사와 불이서원이 가득한 유스타온, 속리산 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산상을 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 정: 2002년 7월 30일(화) - 8월 1일(목) 2박 3일
- 장 소: 속리산 법주사, 유스타온 일대
- 대 상: 초등학교 1~4학년(선착순 300명)
- 참가비: 7만 원
- 준비물: 잠실 도시락(정원),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 문의처: (02) 738-7860
- 은행계좌: 농협 053-02-177171 (예금주 불교문화재단)

※출발: 30일 오전 10시 조계사
※도착: 8월 1일 오후 6시 조계사 불문사

- 주최: 천태불교신문화
- 주관: 불교문화재단
- 협찬: (재)보덕학회, 신사회
- 후원: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통리원, 조계사, 한마음선원, 불문사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사찰의 공적 기능

1. 사찰이 종교적 기능 외로 갖는 공적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문화적 기능 ② 역사적 기능
③ 교육적 기능 ④ 환경보호 기능 ⑤ 기타

2. 사찰이 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은?

①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② 대국민 홍보
③ 시설보완 ④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 ⑤ 기타

설문 참여: 7월 25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제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80호 9면에 실립니다.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금)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37-8881, 02-722-4162 팩스: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聖寶
가정에 봉안하면 家寶
읽고 마음 밝히면 法寶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달집과 불단으로 장식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을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부다피아카드로 봉인불사를..

현대불교신문사와 외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아외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 1점(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